17일 Market Index
코스피 5640.48 (+90.63)
코스닥 1136.94 (-1.35)
금리(국고채 3년) 3.324 (+0.024)
환율(원/달러) 1489.55 (-7.95)

metro® 경제

생활형 부채 상승 채무조정액 60% 40·50대서 발생 08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주유비 상승은 '빙산의 일각' 러·우 사태 재연 '인플레' 공포

중동전쟁 중·장기화 국면

원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통상의 상단을 뚫고 동시에 고공 행진을 지속 중이다. 쉽게 수그러들 기세가 아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주일미군 해병의 페르시아만 이동, 백악관의 주요국 대상 군함파견 요구 등으로 전개되면서 이른 휴·종전의 길이 요원해 보이는 탓이다. 〈관련기사 2·3면〉

국제유가와 환율의 동반 오름세는 국내 경기의 위축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두 지표의 급등 상태가 지속될 시 물가 등 실물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원화가치 하락에 의한 수입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국내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린다. 이는 식품가격 급등을 부른다. 또 원유 시세와 주로 연동돼 움직이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역시 제조업계 전반에 생산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

17일 기준 미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493.6원에 주간(晝間)거래를 마쳤고, 미서부텍사스산원유와 북해산브렌트유, 중동산두바이유는 배럴당 95~130달러에서 거래됐다.

원유 값이 상승하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잇따라 오른다. 석 달쯤 뒤에는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중동전이 장기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에 인플레 압력 관련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과거 사례는 외부 변수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국제유가가 폭등했고, 당시 3% 중반을 보이던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그해 6월 들어 6%를 넘어섰다.

'4월 유류할증료 고시'를 앞둔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항공기들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美 트럼프, 주요국 군함파견 요구
국제유가·환율 동반 '고공행진'
석 달쯤 뒤에 소비자물가도 뛰어
원화 하락, 생산비용 상승 '도미노'
러·우때 보다 물가상승 거셀 것

우선석유류(39.6%)가격이 치솟았고 외식(10.4%)과 가공식품(7.9%), 농축수산물(4.8%) 등의 먹거리 가격 상승세도 뒤를 이었다. 또 국제항공료(21.4%), 전기료(11.0%), 도시가스(11.0%) 등도 크게 뛰었다.

문제는 이번 상황의 경우 국제유가뿐 아니라 환율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은 더 거셀 것이란 게 중론이다.

수입물가를 비롯해 물류비용, 기업 생산비용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1970년대 석유파동 때와 같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한 직후 국채금리가 0.2~0.3%포인트(p) 올랐다. 국내 물가상승 관측이 채권시장 지표에 반영된 것이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유가가 75%가량 상승했는데도 41년 만에 고물가 현상이 나왔다"며 "올해는 유가가 (우크라이나전) 당시보다 낮은 가격에서 시작해서 그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통 물가와 경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석유파동과 같은 심각한 공급 충격 상태에서는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는 오르고 소비·투자 여력은 위축되면서 경기도 침체에 빠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

주요 경제연구기관은 중동 사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내에 끝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르는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p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1%p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전시 부스를 찾은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왼쪽)와 SK그룹 최태원 회장.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 GTC 첫 출격 젠슨 황과 AI협력 공고화

SK하이닉스, GTC 참가
'AI메모리' 주제 전시공간서
HBM4 등 제품 라인업 소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6'을 처음 찾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며 AI 반도체 협력을 공고히 했다. SK하이닉스는 행사장에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시대를 겨냥한 메모리 기술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4면〉

SK하이닉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1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리는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GPU Technology Conference) 2026'에 참가해 'AI 메모리'를 주제로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주요 제품과 기술을 소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행사에 처음 참석해 젠슨 황 CEO의 키노트 현장을 찾았다. 키노트에서는 GPU 기반 가속 컴퓨팅과 AI 팩토리,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등 AI 산업 전반의 기술 방향이 제시됐다.

이어 최 회장은 황 CEO와 함께 행사장 내 SK하이닉스 전시 부스를 찾아 AI 메모리 기술과 협력 성과를 살펴봤다. 두 사람은 전시 제품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눴으며, 황 CEO는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Vera Rubin)' 전시 제품에 "JENSEN ♡ SK HYNIX"라는 사인을 남기기도 했다. 〈4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7% 상승

상승률 역대 세 번째 높아
강남3구 24.7%↑… 지역격차 확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7% 상승하며 전국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는 2007년(22.7%)과 2021년(19.0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강남3구는 24.7% 급등하며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의 보유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111㎡)의 올해 보유세 추정액은 지난해보다 57.1% 오른 2919만원이다. 서초구 반포동 소재 래미안 원베일리(84㎡)의 경우 지난해 1829만원에서 56.1% 오른 2855만원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69%를 유지한 채 시세 변동만 반영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로 집계됐으며, 서울은 18.67% 올라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상승률은 3.37%에 그쳤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24.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성동·용산 등 한강벨트 지역도 23.13% 올랐다. 그 외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지방은 상승폭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하락한 모습이다. 경기(6.38%), 세종(6.29%)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구(-0.76%), 광주(-1.25%), 제주(-1.76%) 등에서는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신세계, 美 스타트업과 AI데이터센터 짓는다

국내 'AI 팩토리' 건설 MOU
총 투자비용 10조 웃돌 듯
정용진 "AI, 선택 아닌 생존"

신세계가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리플렉션 AI와 손잡고 국내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 유통 대기업이 AI 인프라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AI를 미래 핵심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신세계는 16일(현지 시각) 샌프란시스코에서 리플렉션 AI와 250MW(메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이른바 'AI 팩토리'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약 25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단일 기업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 업계에서는 총 투자 비용이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는 역할을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신세계는 부지 선정과 전력 확보, 운영을 맡고, 리플렉션 AI는 GPU 인프라 설계와 AI 모델·서비스 기술을 제공한다. 완공 이후에는 국내 기업과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AI 클라우드 및 맞춤형 모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의 AI 기술 패키지 수출 프로그램 1호 사례로, 향후 금융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세계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기로 AI 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커머스와 오프라인 유통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AI 기반 맞춤 추천과 결제·배송까지 수행하는 'AI 커머스' 구현에 속도를 낸다. 물류·재고 관리 등 운영 전반에도 AI를 접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용진 회장(사진)은 "AI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 임명 /사진 뉴시스
▲오세훈, 결국 공천 신청…"장동혁 안 바뀌면 서울부터 변화"
▲국방부 "청해부대, 호르무즈 우리 선박 위협 대비 오만 원해에서 대기"
▲이 대통령 "경찰관 법 집행 정교해야…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명품백·민원사주 의혹 등 조사
▲'서울시장 출마' 전현희, 청년정책 발표…"최대 1천만원 무심사 대출"